

“불광, 전법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되리라”

불광법회 창립 40주년 기념법회 봉행

한국불교 전법(傳法)의 역사를 새로 쓴 월간 <불광>과 ‘불광법회’의 창립 40년을 맞아 불광사 불광법회가 부처님의 빛으로 불교종흥과 전법교화의 선두가 될 것을 서원했다. 불광사 불광법회(회주 지홍스님)는 지난 12일 지하4층 보광당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스님 등 15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불광 창립 40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하고 보현행원으로 보리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부처님께 봉헌된 사진집인 <사진으로 보는 불광 40년-빛으로 새긴 이야기>는 불광의 40년 역사를 형성기(1927~1973년)와 조석기(1974~1982년), 성장기(1983~1998년), 계승기(1999~2004년), 중창기(2005~2013년), 현재(2014년) 등 6개의 시기로 나눠 각 시기별 활동을 사진과 글로써 담아냈다. 불광사 회주 지홍스님은 이날 법회 봉행사를 통해 “불광이 걸어온 40년의 성장(星霜)은 창조와 성장의 역사 그 자체이자 한국불교 전법사에 한 획을 긋는 과정”이라고 소개한 뒤 “지난 4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다가올 백년도 사바의 무명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 되고, 바라밀국토로 인도하는 전법의 깃발이 되자”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지승스님은 광덕스님의 행장과 지홍스님과의 인연을 소개

한 뒤 “조계종은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데 한국근대불교사에서 전법도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지식이 바로 광덕스님”이라며 “도심 전법의 새 역사를 개척해 온 불광사 불광법회가 오늘의 이 환희와 기쁨을 바탕으로 더욱 정진해 미래 100년의 전법사를 더욱 거룩하게 써가는 전법도량이 되길 발원한다”며 당부했다.

지구총공생회 이사장 월주스님은 법어에서 광덕스님과 함께 종단의 당간지주를 세웠던 일화를 소개한 뒤 “불교는 진리의 등불을 전하고 지혜를 상속하는 전등속해(傳燈續慧)의 역사”라며 “불광은 위로는 스승의 전법전통을 계승하고 아래로는 대중들의 원력을 결집해 더욱 더 신심 깊은 신행단체가 됐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건립한 법당은 전대의 규모를 훨씬 넘어선 만큼 다가올 불광의 미래 역시 전법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축하인사를 전했다.

불광사는 불광 창립 40주년을 맞아 오는 19일 오후7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보현행원승 대공연’과 25일 오후1시 불광사 보광당에서 ‘3000대 융맹정진’, 11월9일 오전10시 ‘불광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대법회’를 각각 봉행한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지난 12일 불광사 보광당에서 봉행된 불광 창립 40주년 기념법회에 참석한 1500여 명의 사부대중은 광덕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보현행원으로 보리를 이루겠다고 함께 서원했다.

장경사, 남한산성 의승군 수록재 거행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가운데 병자호란 이후 남한산성을 지켜온 의승군의 호국정신을 잇기 위한 수록재가 거행된다.

경기도 광주 장경사(주지 경우스님)는 오는 26일 오전10시 경내 특설무대에서 ‘제3회 의승군 수록무차대법회’를 봉행한다. 이에 앞서 25일에는 전국 사찰에서 집결한 의승군이 지역별로 나눠 거주하던 8개 사찰터를 돌러보고 의승군의 역사를 되새기기 위한 ‘남한

팔도사찰 순례하며 호국정신 계승한다

2012년부터 추진중인 남한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불교문화원형발굴사업의 일환으로 수록재와 팔도사찰 걷기순례를 진행하게 됐다.

장경사 의승군 수록재는 고려와 조선 왕실을 위주로 한 동해삼화사와 서울 진관사의 국행수록재와 달리, 병자호란 이후 남한산성을 지켜온 의승군을 기리기 위한 수록재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사찰음식, 160개국 10만 회원 참가 토리노 세계슬로푸드대회 선 보인다

한국의 사찰음식이 세계 160여 개국 10만 명이 넘는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슬로푸드운동국제협회(회장 카를로 페트리니)가 개최하는 세계슬로푸드대회에 초청됐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스님)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이탈리아 토리노 링고토에서 열리는 세계슬로푸드대회에 참가해 사찰음식의 정수를 전한다.

한국관에서는 사찰음식을 주제로 한 전시, 체험, 강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전시코너에서는 사계절을 대표하는 사찰음식 사진전과 사찰 전통 공방간을 재현한 다종이 인형전과 함께 홍보영상을 통해

사찰음식의 과거와 오늘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스님과 함께 사찰공양작법을 체험하고, 음식 만드는 시간도 마련된다. 정관스님과 발우공양을 해 보고, 우관스님으로부터 사찰김치 만드는 법을 배우는 자리다. 또 행사기간 동안 사찰음식레스토랑을 운영해 점心和 저녁 사찰음식을 판매한다.

워크숍에 참석해 사찰음식의 특성을 알리기도 한다. 선재스님은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맛 워크숍에 참석해 ‘한국의 전통장맛’을 주제로 발제하며, 대안스님은 한국관 내에서 사찰음식 강연 및 시연을 한다.

어현경 기자 eonako@ibulgyo.com

정영섭 기자의
현장에서

fuel@ibulgyo.com

종단 차원 교리사이트 개설했으면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지난 9월말 발표한 ‘2014 한국의 사회·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불자들은 교리공부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전을 매일 읽는다는 재가불자의 숫자는 100명에 8명도 되지 않았다. 개신교 37명, 가톨릭 29명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그럼에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8명’의 위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불교를 주제로 한 개인 블로그가 그것이다. 검색란에 ‘불교’라고 치면, 나름대로 불교를 배우고 체험한 수많은 기록들이 끊임없이 열거된다. 내용도 정확한 편이다. 마음을

한결을 더 내어 네티즌이 직접 만든다는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도 일독했다. 불교에 대한 설명이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고 타당하다.

물론 누가 봐도 불교를 편협할 목적으로 타종교인이 썼을 게 분명한 왜곡된 불교도 보였다. “석가가 생로병사의 비밀을 알기 위해 조물주를 찾아 나섰고, 석가가 하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책이 불경”이라는 구절은 불경사남고 한심하다. 자신들의 종교적 우월성을 돋보이기 위해, 부처님을 유일신의 부하로 깎아내리거나 불교를 부수적인 장치로 이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자칫 불교에 문외한인 사람들에게, 불교에 대해 잘못된 첫인상을 심어줄 여지가 있다.

종단 차원의 교리사이트가 있으면 어떨까 싶다.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대중적 관심에 직결한 해답을 제시하고, 조계종의 공신력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유익한 콘텐츠를 채워 넣을 인재는 준비된 상태다. 바로 교육아사리 스님들이다. 종단은 지난 5월 불교계의 다양한 소식을 담은 통합정보 홈페이지를 개설한 바 있다. 사(事)의 영역만이 아니라 이(理)의 영역에서도 돋보이는 종단을 고민할 때다.

“군복무, 사회생활에 큰 자산” 종회의장 항적스님, 육군 호국적성사 법문

“군복무는 짧은 시절 아무나 체험할 수 없는 값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역한지 40년 넘게 지난 나 역시 군번까지 생생히 기억합니다. 앞으로 끈끈한 전우애로 인간관계를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항적스님이 지난 12일 육군 서부전선 최전방인 25사단 예하 71연대 군법당 호국적성사를 찾아 불자장병들에게 지난 군생활을 회상하며 이같이 당부했다. 경기도 파주 외곽에 위치한 호국적성사에서 열린 중앙종회의장 항적스님 초청법회는 71연대와 인근부대 불자장병과 군불자, 해인사 지족암 신도 등 200여 명이 동참해 법당 밖에 간의의자를 마련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됐다.

항적스님은 법회에서 “대한민국 남자라면 겪어야 하는 군복무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국가관을 다지며 인간관계를 확대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불교의 연기사상도 결국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스님의 수행도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중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지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대에서는 학벌, 지연 등을 떠나 인간적인 우정을 쌓을 수 있다”면서 “이는 전역 후 사회생활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만큼 병영생활 동안 더불어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항적스님은 이날 상좌이자 지난 7월 임관과 함께 호국적성사에서 첫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승우 김병주 법사를 격려하기 위해 법회를 마련했다. 법문과 함께 플루티스트 이은정 씨와 피아니스트 이영은 씨의 클래식 공연도 장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파주=허정철 기자



종회의장 항적스님이 지난 12일 호국적성사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

“자각과 공감이 역량강화의 출발” 더프라이스-로터스월드 활동가 역량강화 워크숍

불교계 국제구호단체들이 활동가들의 재충전을 돕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더프라이스(이사장 범등스님)는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스님)와 함께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국제컨벤션에서 태국 SEM(Spirit in Education Movement) 교육트레이너를 초청해 시민사회활동가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SEM은 태국 불교사상가 술락 시바라사 박사에 의해 설립된 대안교육기관으로, 부처님 가르침과 8경도의 원리에 기반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서 지역개발과 시민사회조직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재교육과 충전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불교계 및 시민사회활동가 20여 명이 참가해 명상을 비롯해 심층민주주의, 롤 플레이, 대화와 코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상황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교육받았다. 참가자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치유 받은 느낌이 들었다”고 평가하며 워크숍에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붓 다 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신행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 동일하이빌 B1(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5분거리) Tel: 02)953-7181

화엄경 강좌 모집

원조각성 대 강백 큰스님 직강

귀의삼보하옵고 한국불교의 대 강백이신 원조각성 큰스님의 직강으로 그간 4년 동안 대반열반경을 마치고 다시 화엄경을 개설하였습니다. <화엄경>은 화엄부의 대표적인 경전으로서 한국불교의 수행과 신앙형태에 영향을 끼친 경전입니다. <대방광불화엄경>은 대승사상의 진수요 광대무변하게 우주에 편안해 계시는 붓다의 만덕(萬德)과 갖가지 꽃으로 장식된 진리의 세계를 설하고 있는 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성큰스님께서 생전에 마지막 화엄경 강의를 통해 후학들에게 전수한다는 마음으로 화엄사상의 핵심만 정리된 내용의 대 강좌입니다. 먼저 법성계 화엄일승법계도, 핵심적인 계승과 화엄경약간계, 입법계품의 53선지식, 십지품 등 화엄경요지를 요약해 강설하십니다.

- 강의일시 : 2014년 10월 21일 첫 강의 셋째주 화요일 매월 셋째주 오후 2시
- 장 소 : 동국대학교 (문화관 2층) 학명세미나실
- 수 강 료 : 6개월 스님 35만원, 재가자 40만원
- 대 상 : 비구, 비구니, 재가자
- 구비서류 : 이력서
- 접수기간 : 2014년 10월 20일까지
- 입금계좌 : 국민은행 390401-04-043930 (예금주: 최재동)
- 전화문의 : 010-4242-7070 / 경남부산 전화문의 010-8563-9377 범철스님 / 사무장 010-5311-5150

주최 _ 동국대학교 정각원 원장 중화법타 합장 주관 _ 통화불교 전강원 경전연구회장 화엄법경 합장